

‘손편지가 전하는 감성을 느끼다’

군산 우체통 거리서 9월 26~27일 ‘손편지 축제’ 개최… 특별 전시·다양한 볼거리 선사

‘제8회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이하 ‘손편지축제’)가 9월 26일~27일 군산 우체통 거리 (군산우체국 일원)에서 개최한다.

‘손편지축제’는 2018년 시작돼 매년 주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19일에는 성공적인 축제를 기원하는 의미로 발대식이 열렸다. 이번 발대식은 ‘손편지축제’의 본격적인 준비를 알리는 자리로, 축제의 개요와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협력 단체와 참여자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송미숙 시의원 △군산우체국 유현아 국장 △군산시 도시재생과 △군산 우체통 거리 경관협정위원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뜻을 함께했다.

올해 축제는 우체통 거리 곳곳에서 손편지 쓰기, 느린 엽서 보내기, 우표 만들기 등 체험 행사를 운영하며, 우체통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와 기념 우표 제작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우체통 그리기 △공예 체험 △감사 편지 쓰기 △우체통거리 투어 △나만의 우표 만들기 △우체통 거리 상가 체험 상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전국의 우체국 이용자와 손 편지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특별 전시와 기념



‘제8회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이하 ‘손편지축제’)가 9월 26일~27일 군산 우체통 거리 (군산우체국 일원)에서 개최한다.

우표 제작, 기념 소인 제공 등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신나는 예술 버스’ 사업과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도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올해 축제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이용대상자들은 축제 기간에 다양한 체험

과 기념품 구매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군산시는 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우정사업본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전국 우체국을 통한 홍보 및 참여 유도를 추진하고 있다.

정삼권 도시재생과장은 “디지털 시대에도 손편지가 주는 감성과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축제를 마련했다. 제8회 군산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가 손편지 문화 확산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농산물가공 창업 전폭 지원

지역 농업인 대상,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본격 운영

익산시가 농업인의 안정적 창업을 돕고 농의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에 팔을 걷었다.

익산시는 지역 농업인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농업 구조 전환을 위해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8월 26일까지 총 20회, 회당 4시간씩 진행되며, 농산물 가공에 관심 있는 지역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실습과 이론을 병행해 운영된다.

아울러 교육을 수료(출석률 75% 이상)하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 후 익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과 창업 기회도 제공된다.

교육 과정은 △농산물 가공 원리 △가공품 개발 △창업 절차 △해썬(HACCP) 운영 △식품 안전 및 관련 법규 △기초 세무 및 경영관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케팅 전략 △가공 실습 등 창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실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 수료 후 연계되는 익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2019년 구축된 해썬 인증 생산시설로, 지역 농업인의 제품 생산부터 품질관리와 판촉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창업 육성 공간이다.

시는 창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 사용법, 행정 절차, 자가 품질 검사 등을 밀착 지원해 예비 창업자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6년 국가 예산확보 ‘총력 대응’

부서별 핵심사업 4월 집중 방문 추진… 예산확보 로드맵 본격 가동

군산시가 4월 한 달을 ‘부처방문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부서별로 관계 부처를 방문하여 신규사업 설명과 협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별로 중점 메시지와 설명자료를 촘촘히 보강하여 설득력 있는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2026년 국가 예산확보 로드맵’에 따라 예산편성 전 주기에 걸쳐 단계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국장급 간부와 기획예산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부처 단계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부처 협의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논의된 2026년도 부처 대응 주요 사업은 총 17건으로, 산업·에너지·관광·수산·복지·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비 확보가 절실한 시의 핵심 전략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특히 정부의 2026년도 예산편성 ‘부처 안 편성 시기’에 맞춰, 시 주요 사업을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국비 반영을 선제적으로 끌어내는 실무 중심의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4월 부처방문 이후에는 부처 안 반영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6월 기획재정부 단계 및 9월 이후 국회 심의단계에서도 대응 전담팀을 가동해 예산 반영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교통시설·건축시설 등 130곳 대상… 6월 13일까지

익산시가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61일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자율안전점검 실천 확산을 통한 안전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회적 안전 운동이다.

점검 대상은 총 130개소로 △교량·육교 등 교통시설 24개소 △건축시설 78개소 △육박시설 2개소 △복지시설 4개소 △다중이용시설 1개소 △판매

시설 1개소 △어린이이용시설 1개소 △기타시설 19개소다. 이중 공공시설은 44개소, 민간·사립시설은 86개소다.

점검은 토목,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통해 이뤄진다.

관계부서 공무원과 시설관리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참여하는 특별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키움병원, 14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

군산시는 14일부터 키움병원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키움병원은 지난 3월 4일부터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이미 지역 소아 환자의 야간 진료를 책임져 왔으며,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으로 보건복지부의 공식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으로 키움병원은 보다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지정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유지된다.

지정 의료기관인 키움병원은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이를 통해 부모들은 야간·휴일에도 자녀가 아플 때 빠르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료 후 의약품 조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근 사람약국과 센트럴약국이 협력 약국으로 지정되어 함께 운영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 미룡동 고분군

발굴·시굴 조사 추진

군산시가 마한 역사의 비밀을 간직한 ‘군산 미룡동 고분군’을 4월부터 발굴 및 시굴 조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 시 서쪽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월명산 산줄기에 위치하며, 해발 40~45m의 능선을 따라 고분과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부터〈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시작된 마한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발굴조사이다.

2024년까지 목관묘 40여 개, 옹관묘 30여 개, 주거지 7개소, 화제 유구 1기가 발굴되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시작된 조사로 다양한 유구 및 유물을 통해 숨겨져 있던 군산의 마한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25년 ‘군산 미룡동 고분군’ 발굴조사, 화제 유구 성분분석, 학술대회 등을 추진한 후 국가 유산 지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민생·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 집중해야”

정현을 익산시장, 확대 간부회의 개최… 46개 부서별 과제 공유·집중 점검 추진

익산시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14일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국소단장,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 대책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모두 46건의 부서별 중점 추진 과제가 공유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복지 강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주거·일자리 안정 지원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농업재해 대응 체계 구축 △가족친화적 방역 강화 등 시민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시는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복지·경제·환경 등 전 분야에서 민생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 상수도 자동납부 할인제, 외식업소 환경 개선, 농어업 재해 대응 체계 구축 등 촘촘한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도 본격 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별보증과 청년

주거비 지원, 공공청사 편의시설 확충, 지역서점 활성화 등 지역 내 소비 기반을 넓히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경제 살리기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시는 앞으로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과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민생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생 안정 행정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지금은 행정의 모든 역량을 오로지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시민이 변화와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

